

<차례>

서론: 사관(史觀)들 속에 묻힌 종교적 정체성  
본론: 궁극적 의미에 참여함과 삶의 표현 《성서조선》과 “조와”  
결론: 신앙과 애국

서론: 사관들 속에 묻힌 종교적 정체성

“인간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자신들의 인식론적인 편견의 틀 안에 갇혀 있다. 문제는,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이다.”

김교신에 관한 이해는 다양하다. 그러나 인간 김교신에 대한 이해는 거의 부재한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김교신이란 인물이 처했던 역사의 뒀안길인 일제 강점기의 상황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연구자들은 종종 자신들의 선입견을 김교신의 이해에 투영한다. 인물 김교신 대신에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의 역사속의 ‘고인돌’을 발견하고, 자신들이 발견 한 각각의 고인돌의 입장에서 김교신을 표현하였다. 이같은 경향은 피할 수 없는 인문학의 서술의 한계요, 필자도 피해 갈수 없는 미궁임에는 틀림없다. 역사에 대한 기술이 사진일 수 없다면, 역사의 인물에 대한 이해도 하나의 그림이기 때문이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림 가운데, 가장 빛나고, 표현되어야 할 ‘모체’ (main agent) 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김교신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그가 살았던 일제 식민지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김교신을 이해하는 연구가 아닌, 김교신 자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는 김교신이 역사와 현장이 없는 현상만 있는 인물로 그려 질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 김교신이란 이름에 대한 인식론적인 편견을 제거하고, ‘빈 마음’ (emptied mind)으로 김교신의 삶과 그의 삶의 표현인 《성서조선》을 우선 살펴보아야 한다. 여기서 ‘빈’ 이란 사료와 자료에 대한 개개인의 앎과 해석이 하나의 고착된 개념에서 탈피하는 시도이다. 한편 이는 해석된 앎에 대한 새로운 앎의 초대를 의미한다. 이는 선형 된 정보와 성찰된 해석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다. 근대적인 앎이 알아감으로 변형되어진, 해석함의 무한성을 뜻한다. 그러면 김교신을 통해서 그가 그려낸 삶을 바탕으로 역사와 현장이 보이고, 그가 이야기 하고자 한 인문학적인 견해도 새롭게 보이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김교신에 관한 배경 속에서만 김교신을 이해하였기 때문에, 객체가 주체를 한정하였다. 객체는 “사관,” “종교관,” “인간관,” 등으로 말 할 수 있다.

김교신에 대한 이해는 일차적으로, 그가 자신의 일생이라고 말한 《성서조선》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방대한 《성서조선》의 모든 내용을 다 헤아려 보기는 이러한 소논문은 한계를 가진다. 그로인해서,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선행 연구에서 빈번히 인용된 《성서조선》의 폐간을 가져온 글, 1942년 3월호의 (158호) 권두언 “조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선 컨텍스트로 (context) 《성서조선》을 해석학적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컨텍스트 안에서 위의 작품을 작품 자체로서 어떤 궁극적인 의미가 있는지 분석한다. 이를 통해, 김교신이 작품 가운데 그려 놓은 그의 종교적인 정체성의 해체와 연합의 긴장성을 살핀다. 이 연구는 파편적인 김교신의 대한 이해라는 한계성 속에서 시작하고, 또한 진행되고, 결국 파편적인 김교신 이해로 끝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지금까지의 연구와 차별되게, 그 연구의 각도를 김교신이란 저자의 이름을 지운, 김교신의 일부 문제가 된 ‘프리마 파시’ (주요작품)를 작품 자체로서 비평을 시도한다. 또한 필자는 선별된 작품을 분석함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고전적-역사적인 통시성과 어원적 의미를 추구하지 않으려고 시도한다. 작품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작품이 전하고자 한 ‘정보’ (information) 에 관심을 가지고자 한다. 작품 안에서 개개의 단어의 의미가 아닌, 저자가 구성하고자 한 궁극적인 정보의 발견은, 작품 자체를 독자와 저자의 대화의 장으로 전환시킨다. 작품을 작가의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그 작가에 대하여 무지함을 전제로 한, 그 작품 안에 그려놓은 작가의 심층적 고뇌의 실존적인 질문을 추적한다. 작품 안에서, 작품을 배경으로 하는 역사적 지평이 아닌, 독자 앞에 놓인 작품 자체로서 (feno-text), 독자는 우선 작품을 만나야 함이 어떤 저자에 “관한“ (social and relational web with author’s historical backdrop) 이해 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 본론: 궁극적 의미에 참여함과 삶의 표현 《성서조선》과 “조와”

하나의 화폭인 《성서조선》이란 대작에서 본 소논문이 살펴 볼 ‘조와’는 한 점에 불과하다. 이 한 점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우선 간략하게 도식으로나마 김교신의 인생에 대하여 최소한의 이해는 필요하다. 아울러 그의 인생은 《성서조선》과 분리되어 이해 될 수 없다. 그는 스스로 《성서조선》을 자신의 분신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서조선과 김교신의 삶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조와’가 마지막으로 찍힌 《성서조선》의 제목을 밝혀내는 비평적인 해석함의 작업이 된다.

### [김교신의 삶의 자리/바탕 그림]

김교신의 인생의 발자취 (1901-45)

#### 1. 성장배경

- 1) 아버지의 부재 (김교신 3세때 아버지 김염희가 폐병으로 사망)
- 2) 유교 및, 교육열이 높은 어머니의 존재
- 1) 엄격한 유교 분위기에서 서당에서 논어를 배움
- 2) 부유한 가정환경 (재산은 김교신의 숙부인 김춘희가 관리)

- 3) 함흥보통학교 수학
- 4) 1912년 4살 연상인 한매와 결혼함 (한매는 문맹이었음)
- 5) 함흥농업학교 수학
- 6) 1919년 3·1운동에 간접적으로 참여 (태극기 제작 배포)
- 7) 숙부 집에 대한 가택수색의 여파로 일본유학의 길에 오름

## 2. 학문배경

- 1) 세이코쿠 영어학교 수학 (예비 대학 과정)
- 2) 1920년 일본 “성결교회” 신학생 마쓰다에 의해 입교
- 3) ‘산상수훈’의 도덕률의 절대성에 ‘유교의’ 상대적 도덕률이 무너짐
- 4) 어거스틴의 “은혜”론에 입각하여 펠라기우스 의지론을 극복함
- 5) 출석하던 “성결교회”의 분열에 대한 회의와 우찌무라선생 만남
- 6) 1922년 도쿄고등사범학교 영어과에 입학하나 다음해 지리 박물과로 전과
- 7) 1927년 귀국함 (7년간 우찌무라의 가르침을 수학함)

## 3. ‘소명’ (calling)

- 1) 김교신의 ‘소명.’ 《성서조선》 1927년 7월 창간함 (6인 동인지)
- 2) 1930년 4월로 동인활동 분열되고 5월 (16호)부터 단독 발행
- 3) 1938년 12월 발간 후 총독부 경무국의 차기 호 일본 궁성 게재 지시
- 4) 1938년 일본의 우찌무라 수학의 제자들과 《성서조선》 폐간 논의함
- 5) 총독부의 지시 수락하고 1939 1월호 발간 (120호)
- 6) 1942년 3월호에 실린 “조와”로 인해 강제 폐간됨 (158호)
- 7) 1942년 3월에서 다음해 3월까지 복역함

## 4. ‘직업’ (jobs)

- 1) 1927년 함흥 영생여자고등보통학교 교편생활 (캐나다 장로교 설립학교)
- 2) 1928년 서울 양정고등보통학교 교편생활 (12년간 근무함)
- 3) 1940년 서울 제일고등보통학교 교편생활 (일본인 영재교육기관)
- 4) 1941년 개성 송도고등보통학교 교편생활
- 5) 1944년 7월부터 45년 4월까지 함흥 일본 군수 지원 업체 용흥공장 근무

1900년대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에 김교신은 유복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민중들이 교육의 기회를 부여 받지 못 하는 때에, 김교신은 가장 엘리트 과정을 밟고 성장하였다. 그 당시 선교사들이 문명이란 이름으로 한반도에 들어왔다. 그때 김교신의 인생은 몇 명의 구한말 귀족들에게나 가능한, 선택된 삶이었다. 더욱이, 1940년 일본인 영재 교육기관 제일고등보통학교에서 김교신은 교편생활을 하게 된다. 이것은 그가 민족주의적 역사관에 투철한 교사라고 보기보다, 실력 있는 기독교 정신의 직업관에 충실한 인간임을 증명한다. 그곳에서 6개월이 못되어 그는 낙마한다. 이유는 여러가지였다. 조선어를 사용하고 쓰게 하였다. 지리 시간에 조선반도 (한반도)를 자세히 그리게 하였다. 그중에 가장 유력한 이유는 교사로 도덕적인 자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였다. 이는 김교신이 부임하여 첫 교편생활을 한 함흥에서 떠날 때 일본인 여교사와 일부 여학생들과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소문이였다.

4살 연상의 문맹인 아내를 고국에 두고, 홀로 지낸 일본 유학의 삶과 그리고 지리 및

역사교육을 가르친 공인된 학자요 교사의 길을 걸어간 김교신의 주위에는 많은 여인들과 관련된 소문이 들끓었다. 더욱이 김교신은 1940년에 제일고등보통학교에서 낙마하여, 미국 유학을 준비하였다고 한다. 물론 실제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실천에 옮기지 않는 것이다. 그가 마지막 인생의 삶을 마친 곳도, 대부분의 한국인 노동자들이 힘겹게 생활하는 일제의 군수공장이었다. 그곳에 김교신은 사무직으로 특채 되었고, 그 안에서 한국인 노동자와 함께 공동체운동을 시작한다. 만주와 간도일대의 무장으로 항일 투쟁을 하는 애국지사들의 삶과 비교하여 본다면, 김교신이 군수지원 업체에서 간부의 삶은 극히 대조적이다. 과연 김교신이 전적인 기독교인임에는 분명하나, 애국적인 기독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확히, 김교신은 신학사상가였다. 김교신은, 스승 우찌무라가 주장한, “J-J” (Japan and Jesus) “두 개의 제이” 사상을 “B-C” (the Bible and Chosun) “성경과 조선”이란 자신의 화두로 변형시켰다.

**우찌무라 간조 (일본인임과 동시에 기독교인 일본인)**

[일본 (Japan)-----기독교 (Jesus): 하나로 연결된 공간적 실재성]

**김교신 (일본인이 될 수 없어 이상적 나라를 내면에 그린 신앙인)**

[조선 (Chosun)=====기독교 (the Bible): 부재된 외면이 내면화된 상상]

문제는, 그의 스승에게는 시·공적인 근대적 국가로서 일본이 존재 하였다. 반면, 김교신에게 그러한 국가로서 ‘조선’은 부재 하였다. 여기서 그의 사상은 그의 삶과 분열되고, 통합되지 못한다. 사상이 실현될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그가 자신의 분신인 《성서조선》의 폐간의 위기에, 일본으로 가서 그의 스승의 제자들과 최우선으로 만나고 상의한다. 또한 김교신은 《성서조선》과 ‘우찌무라 간조’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는 끊임없이 변증한다. 그런 변증적인 사상가인 김교신이 치명적인 자신의 염문에 대하여는 왜 침묵하였을까? 이러한 염문은 그가 첫 교편을 잡은 함흥에서부터 줄 곳 끝이지 않은 김교신의 치욕이었음에도 말이다. 이 침묵은 《성서조선》의 해석학적 정체성을 밝힌다. 김교신에게 자신보다 소중한 것이 《성서조선》이라는 말이 된다. 결국 김교신 자신의 사상인 “성서”와 “조선”은 하나가 된다. 이로써 우찌무라 간조의 이분법적, 근대적인 무교회주의 사상을 뛰어넘는 새로운 무교회주의의 장을 연다. 우찌무라 간조의 무교회는 엄밀한 의미로 또 하나의 세속적 교회였다면, 김교신의 무교회는 엄밀한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아야 한다. 전자의 무교회주의가 서구열강의 교파적인 것에 대한 대항이라면, 후자의 무 교회는 우주적인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의 고통 가운데 바라본 도래할 나라였다. 그는 우주적인 조선에 대한 간접적인 이해를 다음과 같이 피력한다.

예수는 단지 유대인이나 기독교 국민의 구주가 아니요, 또한 동시에 이방인의 구주시오 전통에 속하지 않은 천한 신분인 자와 무식자와 서자와 빈자에게도 구주 되심을 사실로써 증명하셨으니 이것이 위대한 복음이 아닌가. 기독교는 한 민족이나 한 교파만이 독점할 고식적 종교가 결코 아니요, 포세계적, 포우주적 대중교요, 전 우주를 주재하시는 참하나님의 계시의 진리인 것이....나타나 있다.

즉 의를 사모하여 ‘의와 그 나라를 구하여’ 갈급한 체험을 가지고, 의를 위하여 조롱과 환난을 당하여 본 생애가 있어야만 옳기 [바벨론 포로기와 그 이후에 정경화 된 책으로 김교신 주장]

보고의 문은 열려진다. 아무리 고등 수학의 지식이 있고 외국어에 능통하였을지라도 의롭게 살  
고자 하는 노력과 그 결과로 좇아오는 비애를 맛보지 못하고는 차라리 읊기의 표지도 들춰보지  
않는 것이 가할 것이요, 아무리 무학한 초부일지라도 의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 본 흔적이 있는  
자면 읊기가 주는 한없는 진리의 위로와 그 안에 전개되는 높고 깊은 실체의 세계관과 신관이  
저의 것이 될 것이니.....

엄밀한 의미에서 김교신 사상의 지평인 ‘조선’은 상상 속 내지 추억 속에 존재한 실체였다.  
그런 상상으로 (imagination) 그려낸 지평인 “성서와 조선”은 도래할 종말론적인 순수 (전적)  
신앙인의 신앙 고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는 근대말의 낭만주의 사상과 유사하다. 종교적인  
면에서 근거 없는 상상은 (groundless-imagination), 현실에 대한 고발이요 미래적인 실재에  
대한 요청이라는 칸트의 비판정신과 상통한다. 부재한 외면가운데, 내면적으로 신앙 조국을  
그렸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성서위에 세워지는 성서와 하나인, 순수한 지적 신앙인의  
마음에 그려진 세계였다. 김교신의 순수한 기독교의 사상은 결국 조국의 과거적인 실재와  
미래적인 실재를 가교하는 상징이 된다. 이 상징은 김교신의 내면가운데 그려지고, 외면적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실현 되지 못한다. 그러나 지금 김교신의 상상대로는 아니지만, 하나의  
독립된 기독교정신이 비판적으로 수용되어 가고, 문화화 되어 가고 있는 시·공적 조국이  
존재한다. 이는 김교신의 신앙적이고 순수한 ‘창조적 상상’이 새로운 한국 인문학의 문화  
지평임을 밝혀 준다.

김교신은 철저히 과거의 조선이라고 볼 수 있는 유교를 비판적으로 기독교와  
대비하여 해석한다. 단순한 외적 모습이 아니라, 유교의 ‘중용’의 한계는 산상수훈의 윤리의  
내면적 세계로 김교신을 몰입시켰다. 김교신에게 유교의 가르침이 히말라야 산이라 하면,  
기독교의 가르침과 도덕률은 히말라야 산맥과도 같았다. 그는 ‘산상수훈’과 우찌무라 간조의  
600회에 걸친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인간의 절대적인 무력감과 대비되는, 어거스틴의 은총  
신학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 칼빈의 문화와 신학의 융합적인 측면보다, 그는 루터의  
문화와 기독교의 이분법적인 구조를 지녔다. 이로 인해서, 그는 자신의 ‘소명’은  
《성서조선》이요 교사는 부업이라고 주장한다. 그에게 존재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가슴의  
하나님이고, 마음의 조국이었다. 이는 그 시대 이념을 실천해야 한다는 또 다른 마르크시즘적  
“사회주의자” 내지 혹은 기독교적 자유주의 “독립운동가”들과 다른 길을 김교신으로 하여금  
선택하게 유도한다. 이는 전적이란 말보다 순수한 신앙인의 길이었다. 그는 일제라는 시대를  
주어진 숙명 가운데 수용한다. 오히려 김교신은 믿음 가운데 조용히 삶을 살면서, 하나님은  
서구 제국주의 팽창주의의 아류로 발생한 이념적 일본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 하실 것이라고,  
담대히 주장한다. 이는 인간 내면의 신앙에 기초한 순수한 신앙을 고뇌하는 기독교인의 용기였다.  
그에게 기독교인의 삶은 능동적 개척이 아니요, 수동적인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다. 이러한  
피동적인 실천은 곧 삶이 곧 행함이고, 신앙이 곧 자신이 되는 인식론적 존재론의 장을 연다.  
단 일제강점기의 그의 존재의 의미도, 공간도, 외면화 될 수 없었다. 이는 루터가 중세 교회  
안에서 그 교회의 공간 안에 속 할 수 없었던 이중적-내면적 분열적 신앙을 표현한 용기와  
유사하다. 즉, 의인이 되었지만, 죄인인 루터의 이중적 인간 정체감 (homo duplex) 이 그대로  
김교신의 삶의 자리였다. 이런 이중적 정체감의 분열된 김교신은,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선상에서 자신이 “아무리 한 대도 너는 조선인이다”라고 부르짖는다.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본인이 될 수 없는 실존적 한계에 대한 발견이었을 것이다. 조선도 대한도 없었던 삶의 자리가 바로 일제 강점기였다. 일본은 대 제국이었던 로마나 지금의 미국처럼, 속국의 인재를 속속들이 자국화 시키지 못했다. 김교신은 또 다른 일본과 같은 나라로서의 조국을 원했다고는 볼 수 없다. 그에게는 조선인도 회개해야 하고, 일본인도 진정한 기독 정신 앞에 회개할 대상이었다.

김교신은 거대한 지상의 제국 대신에, 가시적 교권적인 왕국 (Christendom) 대신에 삶의 자리에, 사람들과 함께 하는 순수한 삶의 공동체를 꿈꾸었다. 반일도 친일도 아닌, 주어진 자신의 신앙의 자리에, 수동적으로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바라는 순수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간다. 그의 마지막 삶은 하나의 거대한 내면적 사상의 삶을 미래 지향적으로 보았던 삶의 자리가 어디였는지를 보여준다. 한 마디로, 진정한 애국도, 진정한 신앙도, 주어진 삶에 대한 수용과 그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기독교적 사랑의 실천임을 김교신은 보여 주었다. 일본 군수물자 지원 업체의 간부로 살아 갈 수밖에 없었던 김교신이, 그 안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이었음을 유언하였다. 이유는 그의 조국의 씨앗을 일제의 군수공장의 취약한 조선인 노동자들과 함께 함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이다. 이런 인간 김교신, 자신의 사람들 가운데 자신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내면의 나라가 실제화 된다. 결국 조국의 모체는 조선인들이었다. 이를 증명하듯, 성서의 사람인 김교신이 제일 슬퍼한 사건이 있었다. 바로 그의 제자 안병현의 사망이었다. 아울러 그는 그의 마지막 일본 군수물자 지원 업체에서 발진 장티푸스로 세상을 떠날 때, 그리도 그리워 한 곳이 바로 그와 함께 한 공장의 노동자들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었다.

안군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 외에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었다....안군이 정의감에 대하여 예민하게 감응하는 태도는 마치 철편이 자석에 흡수되는 것 같았다. 의에 감촉하는 순간 양과 같이 우수하던 저의 눈동자는 포효하려는 사자의 그것같이 변하였다. 기독교계는 물론이요, 오늘날 인류 사회에 긴급히 요구되는 것이 저와 같이 참 인간인데 홀연히 이 세상을 떠났으니 이 무슨 뜻인가? 백이나 천이라도 많다 할 수 없거든 하나마저 떠나느냐. 군으로 더불어 할 일 많은 때에 아아, 병현아, 병현아!

안의사 [김교신의 마지막 말을 들은 안상철 의사], 나 언제 퇴원하여 공장으로 갈수 있습니까? 나 40 평생에 처음으로 공장에서 민족을 내 체온 속에서 만나 보았소. 이 백성은 참 착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불쌍한 민족입니다. 그들에게는 말이나 빵보다도 따뜻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제 누가 그들을 그렇게 불쌍한 무리로 만들었느냐고 묻기 전에 누가 그들을 도와 줄 수 있느냐가 더 급한 문제로 되었습니다. 안 의사 나와 함께 일합시다. 추수할 때가 왔으나 일꾼이 없습니다. 꼭 갑시다.

김교신의 실존적인 고민이 기독교 사상과 조우하게 하였다. 외면적 억압과 조국의 부재 가운데, 김교신은 《성서조선》이란 자신만의 세계를 그렸다. 폐간된 《성서조선》은 김교신에게서 진짜 조국을 만나게 해 주었다. 조국 조선은 조선인들이요, 조선인의 마음이요, 자신과 같이 부재된 나라 가운데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의 종들이었다. 처세술적인 우찌무라 간조의 분열된 사상적

학문적 신학함의 유희가 김교신을 통해 문화비평적 신앙의 정수요 실천적 삶으로 재구성된다. 우리는 이어령 교수가 주장한 탄력적인 한국의 사상적 문화배경은 결국 물질적 서구 문명구조에 앞선다는 논리의 실현자가 김교신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김교신은 실존적 부재의 나라 가운데, 히브리적이면서 동시에 헬라적인 신학사상을 마음에서 실현한 순수 기독교사상이었다. 이러한 김교신의 내면과 외연의 신앙의 정체감은, 그도 모르게 그의 말년에, 삶을 통해 표현된다. 가난한 자들과의 연대의 삶이 그의 나라인 《성서조선》은 이제 일제군수물자 업체안의 취약계층인 조선인 노동자들과 연대된 삶의 자리로 대체된다. 아울러 그의 수동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기다림은 “해방”을 통해서 역사 속에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김교신의 《성서조선》이란 내재된 상상의 나라가 조선인들이란 민초들로 대체된다. 조선인들과 함께 함이 곧 나라였다. 그 나라에서 성서와 나라는 분리될 수 없었다. 그는 그 당시 거룩함을 빙자한 서구 제국주의가 꿈을 꾸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눈에는 그의 사상은 반역자의 사상이었다. 아울러 시·공의 교회와 신앙에 몰두한 교권의 시각에서, 김교신은 종교적으로 세상으로 가버린 교회를 떠난 ‘세속화’ (secularized)된 탕자였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세속은 곧 진정한 종교라고 진단해야 한다. 그는 피터 버거의 지적처럼, 종교적 상징을 떠나서,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문화의 현장으로 떠난 세속을 거룩함으로 본 종교적 개혁자였다. 당연히 그에게 내면의 분열 없이 외면적 현상 (status quo)에 귀속된 과거의 유교적 조선도, 지금의 제국적 일제도, 권력화 된 기독교도 모두 세속임에 분명했다.

### “조와” 분석과 비평

작년 늦은 가을 이래로 새로운 기도터가 생겼었다.

[층암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가느다란 폭포 밑에 작은 담을 형성한 곳에 평탄한 반석 하나 담 속에 솟아나서 한 사람이 꿇어 앉아서 기도하기에는 천성의 성전이다.]

이 문장에서 강조된 정보는 바로 새로운 기도터이다. 한글의 기본 문장 구조는 명사가 주어로 오고, 다음에 동사가 따른다. 그런데, 부사구가 문두에 놓여 있다. 주로 문두에 오는 단어나 구가 강조되는 측면이 있다. 이 문장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 문장에서 강조된 앞의 부사구도 따라오는 형용사인 ‘새로운’을 수식하고, 이 형용사가 따라오는 주어인 명사 ‘기도터’를 수식한다. 결국 이 첫 문장의 핵심 정보는 새롭게 생긴 기도터에 집중한다. 그리고 따르는 문장은 주어진 정보 (전제된 강조점인 새로운 기도터)에 대하여 침묵하고, 그 기도터를 설명한다. 그 기도터가 기도하기에는 ‘천성의 성전’이라고 상징화 한다. 이로써 은유 (metaphor)를 통해서 원래의 정보인 외면적 기도터를 내면적 공간으로 고양 (sublimation) 시킨다.

이 반상에서 혹은 가늘게 혹은 크게 기구하며 또한 찬송하고 보면 전후좌우로 엉금엉금 기어오는 것은 담 속에서 암색에 적응하여 보호색을 이룬 개구리들이다.

산중에 대변사나 생겼다는 표정으로 신래의 객에 접근하는 친구 와군들.

때로는 5-6마리, 때로는 7-8마리.

앞의 강조된 정보인 '새로운 기도터'를 전제로 이 문단이 시작한다. 여기서는 부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설명하는 장소적 개념을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결국 이 문장은 앞으로 이야기 될 또 다른 이야기를 위한 공간적인 여백 (circumstance)을 독자의 마음에 그린다. 일종의 앞의 중요한 정보를 다시 기억하면서, 그 정보 안에서 새로운 정보를 예견하게 된다. 새로운 정보는 문장의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개구리들이다. 비록 개구리 앞에 형용사구가 '암색에 적응하여 보호색을 이룬'이란 말이 있지만, 그 앞서 주어가 '것'으로 먼저 등장한다. 이는 글을 읽는 독자로 '주어'인 명사 '것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서술어에 접하게 된다. 서술어가 바로 그 주어의 반복된 '개구리들이다'로 등장한다. 다시 말해, 주어가 두 번 반복되어지고 있다. 결국 이 문장에서 강조점은 앞의 문장에서 내포된 정보인 '개구리'이다. 단 이 문장은 이 강조된 개구리를 '개구리들이다'라는 동사형을 통해서, 문장 전체가 설명 (predicate)을 통하여 현 개구리의 상태나 모습을 묘사하는데 치중한다. 그 개구리들의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는 이 문장에서 마지막 두 문장은 불완전한 시적 표현으로 그 개구리의 정체성을 '친구 와군들'이라고 저자는 부연 설명하고, 이들의 수적인 개념을 설명한다. 독자에게, 이 수적 개념에는 큰 의미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 중요한 것은 앞의 문장에서 등장한 정보인 '새로운 기도터'는 이제 '개구리'란 새로운 정보의 공간적인 의미로 변형된다. 동시에 개구리를 친구라 함은 이 글의 저자의 자연친화 사상 내지, 자신의 기도소리가 개구리 소리와 비교하는 자기 학대적이든지, 자신의 지금의 외로움을 간접적으로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독자는 상상을 할 수 있으나, 이 문단에서 더 이상의 의미는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서술형의 문체가 갑자기 불완전한 문법 파괴를 가져 오면서 개구리를 친구라고 비유함을 통해, 개구리의 정체성 (identification)을 친구로 고양 시킨다.

(늦은 가을도 지나서 담상에 얽은 얼음이 불기 시작함에 따라서 와군들의 기동이 일부일 완만하여지다가, 나중에 두꺼운 얼음이 투명을 가리운 후로는 기도와 찬송의 음파가 저들이 이막에 닿는지 안 닿는지 알 길이 없었다.)

이렇게 격조하기 무릇 **수개월이요!**

이 문단은 바로 위의 문장과 구별되어 저자가 기술하였지만, 앞의 문장과 다르지 않게, 개구리들의 현상을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 가운데, 첫 번째 문장에서 이 글이 시작한 '작년 가을'을 회상된다. 여기서는 이 가을이 앞의 문장에서 저자가 기도의 처소를 발견하는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시간이 아니다. 여기서는 그 시간 개념이 부정적인 개념으로 바뀐다. 문장이 앞의 첫 번째 문장의 정보에 대한 반어적인 형태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 문장 또한 두 번째 문단에서 마지막에 문법 파괴를 통한 시적 표현으로 끝남과 동시에 감탄문을 가리키는 '!'가 등장한다. 이는 저자의 마음의 감흥 (phatos)를 흘러넘치게 한다. 전체적으로 보아 처음 가을은 기다리고 찾던 신앙의 내면을 외면화 시킨 자신의 기도처의 발견이라면, 여기서는 그러한 기도처에서 함께 한 개구리들이 아니, 저자에게 절친한 친구들이 사라짐을 통해 그들에 대한 사무치는 기다림을 표현한다. 그만큼 기도처 보다, 그 기도처에서 함께한 개구리들이 저자에게는 보다 중요한 정보로 강조 되고 있다.



봄비 쏟아지던 날 새벽, 이 바위틈의 빙괴도 드디어 풀리는 날이 왔다. 오래간만에 친구 와구들의 안부를 살피고자 담 속을 구부려 찾았더니  
**오호라, 개구리의 시체 두세 마리 담 풀이에 부유하고 있지 않은가!**

계속해서 정보는 '개구리'에서 변하지 않는다. 위의 문장에서 가을은 이제 '봄비 쏟아지던 날 새벽'으로 바뀐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었고, 저자는 가을을 지나서 그 봄비가 오는 새벽까지 기도의 시간을 같은 장소에 가졌다는 사실을 독자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장도 결국 시적인 표현으로 저자의 애도의 감탄사 '오호라!'와 이중 부정 '있지 않은가!' 개구리의 상태에 대하여 자신의 정체감을 동일시한다. 개구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은 듯 그 개구리의 상태에 대하여 애통하는 것이다. 여전히 문장은 첫 번째 문단을 제외하고는 개구리에 대한 설명을 하는 문장으로 구성된 문단이다. 그리고 이제 다 죽었다. 그리고 자신이 친구라고 동일시 한 개구리가, 그의 기도 처소에서 그것도 새벽에 개구리를 찾는 저자의 애절함으로 이 문단은 끝을 맺는다.

짐작컨대 지난겨울의 비상한 흑한에 작은 담수의 밑바닥까지 얼어서 이 참사가 생긴 모양이다. 예년에는 얼지 않았던 데까지 얼어붙은 까닭인 듯. 동사한 개구리 시체를 모아 매장하여 주고 보니, 담저에 아직 두어 마리 기어다니다.

**아, 전멸은 면했나 보다.**

이 문장도 여전히 정보의 정체성인 개구리에 대한 이야기이다. 단 문두에 시간을 나타내는 '지난겨울'앞에 저자의 '짐작컨대'라는 말이 삽입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감탄사로 시작하여 두 개의 단어의 의미상의 역동적인 대조로 개구리의 현 상태를 설명한다. 즉 '전멸'과 '면했나'라는 두 단어는 하나의 쌍을 이루어, 저자의 짐작의 불완전함을 드러내고, 여전히 개구리가 죽지 않았음을 '보다'라는 강조되지 않은 단순한 설명으로 문장을 끝을 맺는다.

문장의 정보 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문단: 새로운 기도터 (정보)=현재 실제한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문단: 반석으로 표현된 기도터에서 개구리의 발견=개구리가 친구가 됨

세 번째 문단: 반석으로 표현된 기도터에서 개구리의 연모=친구를 기다림

네 번째 문단: 반석으로 표현된 기도터에서 개구리의 동사=친구의 죽음과 애도

다섯 번째 문단: 저자의 애도의 오류=친구의 발견 (살아있는 소수의 개구리)

문장의 정보 형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문단: '정보' 지시화=기도터 (장소의 상징성: 현재의 하나님 나라)

두 번째 문단: '정보' 대조화=개구리 (대상의 상징성: 개구리가 친구됨)

세 번째 문단: '정보' 설명화=개구리 기다림 (시간의 기다림-외로움)

네 번째 문단: '정보' 설명화=개구리 전멸함 (시간의 경과됨-절망감)

다섯 번째 문단: '정보' 대조화=생존한 소수의 개구리

(대상이 상징성: 하나님 나라의 대상화)

문장의 구조적인 정보의 골격은 다음과 같다.

A. 하나님의 나라=기도터

B. 기도터에서 저자의 정체성의 발견=개구리

C. 기도터에서 저자의 정체성의 고뇌=부재한 개구리

B. 기도터에서 저자의 정체성의 상실=개구리의 전멸

A. 하나님의 나라=기도터의 공간성이 개구리란 자아의 발견으로 비유됨

### 결론: 신앙과 애국

김교신의 일생은 어찌 보면 애국이란 말과 멀어 보인다. 일본유학과 우찌무라 간조의 일본을 기독교와 대등하게 본 신앙을 받아들인 사실도 그러하다. 결정적인 위기에 일본의 무교회주의자들의 조언을 따랐다. 일본인들의 영재 교육 기관에서 교편을 잡았고, 일본 군수 지원 공장에서 간부로 특채되어서 일한 것도, 물론 관계된 친분이 있는 일본인 직원의 배려라고는 하지만, 김교신을 극단적인 면에서 애국자로 보기에 어려움이 많다. 아울러 '조와'라는 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의 시는 한 고뇌하는 신앙인이 자신의 고독한 기도의 자리에서 발견한 한 애니미즘적인 요소에 자신을 투영하고 살고 죽는 과정과 가을 겨울 봄의 상징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발견한 개별 신앙의 정체성을 보여 준다. 이 '조와'로 말미암아 김교신의 의도와는 달리, 개구리가 조선으로 해석 당한다. 《성서조선》을 폐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총독부가 지시한 황국시민을 선전하는 내용을 성서조선에 실을 정도였던 사람이 김교신이다. 그리고 아울러 폐간의 위기를 넘긴 이후, 줄곧 《성서조선》에 김교신은 성서에 대한 이해와 산상 수훈같은 중립적인 입장의 순수 신앙적인 글만을 썼다. 그런 맥락에서 김교신이 '조와'에서 개구리를 일부러 조선인과 일치시켜서 기록하였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최소한 독자는 김교신의 신앙 정체감을 '조와'에서 발견할 수는 있다. 그의 내면적 사상의 정체성과 조국인 《성서조선》이 구체적으로 외면화 된 사건이 바로 '조와'가 보여주는 신앙인의 내면적 발견과 외면적 표현의 합일 성이라고 보아야 한다. 기독교 신앙이 교조적, 사상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실재되어 질 때, 김교신은 자신도 모르게 애국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후에 이 '조와'에 대한 총독부의 편견적인 해석으로 무고히 옥고를 치를 때, 김교신은 일본의 제국주의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남으로 망할 것이라고 호통을 쳤다. 후에 그의 신앙은 그 당시 지식인의 안락의자인 학원에서 감옥으로 전향되고, 나병환자들 속에서 그리고 착취당하는 조선인들 속에서 자신의 정체감을 찾는다. 구호와 선전을 지향한 애국이 아니라, 참 기독교 신앙을 내면으로 현장에서 고민하면서 삶으로 구현된 현상이다. 진정한 신앙인은 개별 종교의 차이와 관계없이, 진정한 애국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김교신은 그의 삶을 통해 보여 주었다.

“무엇이 애국인가?” 라는 질문에 무조건 반미를 외치고, 서양은 오랑캐라고 하는 탈근대의 한국의 어두운 자화상을 우리는 김교신의 삶과 글을 통해서 비추어 보아야한다. 또한 여전히 한국 기독교의 독단과 고민하지 않은 신앙에 대하여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여타의 종교든 비 종교든 자신이 존재의 현장에서 인간이 됨을 무엇인가를 고민한다면, 그는 참된 종교인이요. 자신도 모르게 애국을 하게 될 것이다. 논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실천을 앞서지 못한다. 실천을 앞선 논리와 교리가 우선하는 종교라면, 이는 사상은 될 수 있으나 진정한 인간으로 참다운 삶의 자리는 회피하는 근대 말의 낭만주의 궤도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만다. 한편, 고민하지 않고, 실천하는 자는 그 실천 또한 사상이 되고 만다. 진리든 도든, 중용이든 선이든, 종교라면 종교인이라면, 자신의 종교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자신이 얼마나 비종교적인지 발견함을 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김교신이 그러한 삶을 산 인물이라고 감히 주장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김교신이 이해한 다니엘서와 다니엘에 대한 말을 인용하여 보자.

기독교는 일거수 일투족 비판 없이 용납된 때가 없고, 까닭없이 미움만 받는다. 다니엘은 이 점으로 신도의 모본이다. 저가 기도 때문에 잡힌 것은 예수가 독생자라고 해서 잡힌 일과 흡사하다. 저가 금령에도 불구하고 매일 세 차례의 기도를 여전히 계속한 것은 반항 의식으로서가

아니라 신앙의 자연 노출이다. 속으로만 믿어도 족하지 않으냐는 이론은 아직 참신앙의 체험 없는 자의 방송이다.

김교신은 다니엘과 흡사하다. 그가 지금 살아도, 올곧게 고민하면서 오늘의 현장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앙으로 신분과 직위를 무론 하고 자신의 종교성에서 기인한 참됨을 말 했을 것이요. 자신의 가야 할 길을 갔을 것이다. 그가 청소부라면 청소를 자신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노동이 자신의 소명이라면 사심 없이 일함이 참 기독교성을 보여준 이가 김교신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권 다툼과 찬반 논리에 실제의 현장과 자신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이가 김교신이였다. 그에게 있어야 할 가야할 벗어 날수 없는 궤도가 바로 지금까지 전적 기독교로 잘못 이해된 순수 신앙인의 자리였다. 김교신은 황국시민으로 이름을 개종하지 않았다. 이유는 반일이 아니라, 그에게 천황은 ‘신’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전한다. 신앙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순수한 용기에서 발현된다. 그러면 그것이 시대의 어두움을 이긴다는 바른 종교와 그 종교인의 삶으로 보여 준다. 신앙인의 애국은 그 순수한 신앙인의 삶 자체라는 것을 우리는 김교신을 통해 발견한다.

#### 참고 문헌

##### 1차 자료: 김교신 관련 자료

노평구 엮음. 《김교신 전집 1: 인생론》. 서울: 부키 출판사, 2001.

----- 《김교신 전집 2: 신앙론》. 서울: 부키 출판사, 2001.

----- 《김교신 전집 3: 성서개요》. 서울: 부키 출판사, 2001.

----- 《김교신 전집 4: 성서연구》. 서울: 부키 출판사, 2001.

----- 《김교신 전집 5: 일기 I》. 서울: 부키 출판사, 2001.

----- 《김교신 전집 6: 일기 II》. 서울: 부키 출판사, 2001.

## 2차 자료 (국문)

김용복. “사회참여의 관점에서 본 김교신의 《성서조선》 운동.” 《조직신학연구》 10 (2008): 306-55.

김은섭. “김교신의 역사의식.” 철학박사, 연세대학교, 2004.

김정환. “김교신 연구: 교육적 측면을 중심으로.” 석사논문, 고려대학교, 1973.

박규환. “김교신 (1901~1945) 생애와 사상.” 《새가정》 606 (2008): 50-3.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1》.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4).

박찬규 엮음. 《김교신 거대한 뿌리》. 파주: 익두스 출판사, 2011.

오지원. “김교신의 신앙 연구.” 철학박사, 백석대학교, 2009.

양현혜. 《윤치호와 김교신: 근대소선에 있어서 민족적 아이덴티티와 기독교》. 서울: 한울 출판사, 1994.

----- “김교신의 ‘전적 기독교’ 신앙과 그의 기독교 사상.” 《한국기독교교와 역사》 35 (2011): 109-40.

이어령. “한국문화와 세계문화.” 《연세대 연신원 목회자 하기세미나》 17 (1997): 233-37.

전인수. “김교신의 ‘조선산 기독교’: 그 의미, 구조와 특징.” 《한국기독교교와 역사》 33 (2010): 163-90.

----- 《김교신 평전: 조선을 성서 위에》. 춘천: 삼원서원 출판사, 2012.

정준기. “김교신 사상 연구.” 《한국기독교연사연구소소식》 6 (1991): 11-4.

정현아. “버나드 로너간의 비판적 형이상학의 의미.” 《한국종교학회》 14 (2005): 95-105.

## 2차 자료 (외국어)

Avishur, Y. *Studies in Biblical Narrative: Style, Structure, and the Ancient Near Eastern Literary Background* (Jerusalem: Graphit Press, 1999), 13-4.

Bergner, P. *The Sacred Canopy: Elements of a Sociological Theory of Religion*. New York: Doubleday Press, 1969.

Buldulia, Joseph and Others. “Thin and Thinner: Hypothesis-driven Research and the Study of Humans.” *Numen* 61 (2014): 186-211.

Fox, Andrew. “Topic Continuity in Biblical Hebrew Narrative.” In *Topic Continuity in Discourse: A Quantitative Cross-Linguistic Study*. Ed. T. Givón. Amsterdam: John Benjamin Press, 1983.

Jung, Chung Ki. “Social Criticism in Non-Church Christianity in Uchimura Kanzo and Kim Kyo-Shin.” Ph.D. diss., Chicago University, 1988.

Kotze, R. “The Circumstantial Sentence—A Catch-Them-All Term? A Study in Sentence Relationship in 1 Samuel 1-12,” *Journal of Northwest Semitic Language* 15 (1989): 109-26

Lambrecht, K. *Information Structure: Topic, Focus and the Mental Representations of Discourse Referen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Lonergan, Bernard. *Method in Theology*. Toronto: Toronto University Press, 1971.

Peck, S. *In Search of Stones: A Pilgrimage of Faith, Reason, and Discovery*. New York: Hyperion Press, 1995.

Taylor, M. *Erring*.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81.

----- . *After God*.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2007.

Thomas, R. "Virgil's Georgics and the Art of Reference." In *Reading Virgil and His Texts: Studies in Intertextuality*. Ed. Richard F. Thomas. Ann Arbor, Michigan: Michigan University Press, 1999.

Tremlett, P. "Re-Cognizing the Mind in the Anthropology of Religion." *Numen* 58 (2011): 545-65.

Westerink, H. "Participating and Giving Ultimate Meaning: Exploring the Entanglement of Psychology of Religion and Phenomenology of Religion in the Netherlands." *Numen* 57 (2010): 186-211.

### Abstract

This research centers on how to understand the person Kyou-Shin, Kim (김교신). Previous studies have paid attention to a historical background where Kim had lived, called a colonial era of Korea by Japan. It tends to depict Kim as a ideological person without his direct relationship with his own religious identity.

Whin this short article, a major concern lies in a descriptive and objective evaluation of the life of Kim and well as his prima faci "Cho-Wha" (조와). In doing so, this writer tries to face Kim's life and a selected work with the assumption of "the absence of assumptions." It causes to brings forth another new meaning different from the products of the previous researches.

With a careful presumption, one might expect that Kim as a religious human being would be distant from any ideological confrontations in concomitant with his contemporary. In addition, a descriptive analysis of the work "Cho-Wha" might be expected to support how pure Kim's religious approach to Christianity was, which resulted in a true concept of a pure patriotism. This conclusion might make a correction of any religious dogmatism at expanse of doing-theology.

Key Words: Kyou-Shin Kim, Cho-Wha (조와), Sungsuchosun (성서조선).

